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한 분이신 주님의 다양한 사역

(마 9:18-26)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승리를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

본문에는 자기의 딸이 죽어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 온 회당장 아이로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아이로는 그간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마침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왔습니다.

2.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혈루증은 유대교 의식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막 5:36)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절망을 떨쳐버렸습니다.

3. 한 분이신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동시에 아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부정하고 낙인 찍혔던 여인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역들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거나, 누구를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 아이로와 같이 또 혈루증앓던 여인과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Various Works of the Lord Who Is the Only One

(Matt. 9:18-26)

Everyone is not born for failure or victo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people look at God by lifting their faithful eyes, and do not choose despair but desir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The background of an incident and a character

In the text, there appeared the Synagogue ruler, Jairus whose daughter had just died and came to see Jesus, and an unknown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The Synagogue ruler Jairus had tried to heal his sick daughter in many ways. He went to Jesus for his last hope. In his hasty heart, at the time when he took Jesus to his house, a sick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secretly came behind Jesus. Upon touching the edge of his cloak, she was healed. But the Synagogue ruler was very impatient due to the incident of Jesus healing her in the street, how impatient was the Synagogue ruler by the delayed time? Just then, he unfortunately heard his daughter had already died; he did not need to take Jesus to his house.

2. People who don't despair in any situation and lose their faith to the end

Dacryohemorrhrea (bloody tears) was a disease. However, this woman did not give up her life, she went to see Jesus, and touched the edge of Jesus cloak. That's why she was immediately healed drying up the source of dacryohemorrhrea.

The Synagogue ruler Jairus did just like that. Though he heard that his daughter died, as soon as he heard Jesus word, "Don't be afraid: just believe" (Mark 5:36), he threw away all of his desp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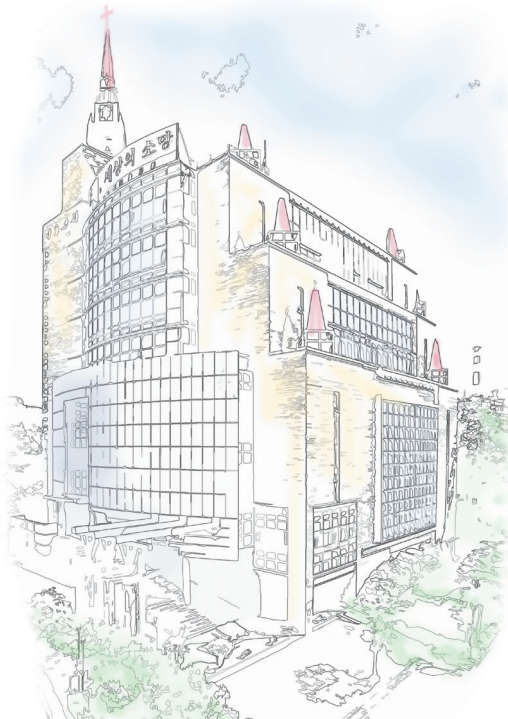
3. The various works of Jesus who is the only one

It is Jesus who is the only one. However, Jesus, almost at the same time, worked for Jairus' daughter and the woman to stop flow of her blood. Though Jesus is the only one, his work is simultaneously achieved in various ways. Our Lord never considers us who are more precious or less precious than others.

If there is a problem in our life, it is not the problem of Jesus love and power but the problem of our faith.

My beloved Christians,

Faith is not an idea. A real faith is to act. Even though the worldly people could not help giving up in every situation, we should never give up like the Synagogue ruler Jairus and the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By coming to Jesu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blessed from God's boundless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카자흐스탄 비전트립 파송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3년도 제 13기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 파송 예배가 오늘 찬양예배시에 있다.

2013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은 일반팀 6명, 의료팀 8명, 청년팀 10명, 총 24명으로 그 동안 카자흐스탄 언어 및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파송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는 비전트립을 위한 별도의 바자를 하지 않고 교회 지원과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

- 진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도:서명철 목사 / 단장:이준호 집사
 - 부단장:정철웅 집사 / 총무:신두호 집사
 - 부총무:이성화 / 회계:이인영 / 서기:박선영
 - 의료팀:김봉배 집사, 정현구 집사, 이승헌 집사, 박하나, 진민선, 김예나, 김혜미, 이다솜
 - 장년 및 청년팀:곽태수 집사, 김희영 집사, 박수진, 임이랑, 김준석, 한현지, 이근원, 정예흔, 이희준,

2013 이웃과 함께 하는 바자

지난 주 우리 교회는 2013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 행사의 일환인 『생명의 우물파기』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생명의 우물파기는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깨끗한 생수를 공급해 주는 운동으로 이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이다.



교워국 여름성경학교

신나는 여름성경학교!



사진 : 노애리 집사(유년부) / 이준태 성도 (편집부)

금주의 여름 수련회

-에바다부 :29일(월)~31(수)-

부 시	일 시	장 소	주 제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4(수)-15(목)	화방교회	하나님의 나라
에바다부	7.29(월)~31(수)	아가페타운	작은 자들의 친구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신앙강좌부 개강

8월 4일(주) 2부예배 후, 904호

신앙강좌부가 8월 4일(주), 2부예배 후 904호에서 개강한다. 김영한목사의 강의로 "기독교"를 공부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린다.



교역자 휴가

- 한상은 목사 : 30일(화)-8월6일(화) 주일은 제외.
대행: 7월30일(화)-8월1일(목) 서명철 목사
8월2일(금)-5일(월) 황광 목사,
8월6일(화) 장석남 목사
- 정수길 목사 8월1일(목)-8일(목) 주일은 제외.
대행: 장석남 목사
- 유문건 목사 30일(화)-8월6일(화) 주일은 제외.
대행: 7월30일(화)-8월5일(월) 황광 목사
8월6일(화) 장석남 목사
- 배경애 전도사 7월30일(화)-8월2일(금),
8월27일(화)-28일(수)
대행: 7월30일(화)-8월1일(목) 서명철 목사,
8월2일(금) 황광 목사,
8월27일(화)-28일(수) 서명철 목사

주일 주정차 단속 강화

오늘부터 계속돼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일 주정차 순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통보가 왔다.

성도들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주정차 단속이 유보 되어 있는 삼성로 주변 주정차시 반드시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하고,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일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3 비전트립을 떠나며

카작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라” (행1:8)



이준호 집사
(2013비전트립 단장)

드디어 카자흐스탄으로 비전트립을 떠날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단장으로 섬기게 된 이후로 이은준, 강해정 선교사님의 용의주도하신 지도와 서명철 지도목사님의 교육,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전체 1,700만 인구 중 2%에 불과한 카자흐스탄으로 제 3차 비전트립팀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사역을 베풀고자 진군의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년 카자흐스탄 1차 단기선교와 2007년 미르교회 헌당식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토대 위에 미르교회는 첫발을 내 디딘지 8년 만에 이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심조심, 한 걸음씩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은 일반팀 6명, 의료팀 8명, 청년팀 10명으로 총원 24명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선교교육과 율동, 위생, 인형극, 찬양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왔으며, 외과, 내과, 치과 의사와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의료팀은 준종합병원이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1,000명 이상의 환자

를 진료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지역에 세 번째 비전트립을 가게 됨으로써 서울교회가 일회성 비전트립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선교를 실시하여 현지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전트립을 준비하면서 경제원칙과 투명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출국에서부터 의료장비 통관, 장시간의 야간버스 이동, 의료사역 중 종교경찰들의 방해, 무슬림들의 핍박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이뤄지는 순간마다, 그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타라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팀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 비전트립을 떠나며-의료선교팀

주님의 치료 손길과 함께!

기도바랍니다



정철웅 집사
(2013비전트립 부단장 의료선교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비전트립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비전트립 의료팀은 외과 의사 2명, 내과 1명, 치과 1명 등 총 4명의 의사와 각각 한명의 간호사, 약사 그리고 청년 도우미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외과에서는 다양한 외과질환과 정형외과질환들을 진료하게 되며 양성종양절제술 등의 국소마취로 가능한 간단한 수술들과 양방 침을 이용하여 여러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차후 한국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과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가게 되어 기본적인 내과진료뿐 아니라 지난번 이은준 선교사님께서 기도편지에 소개하셨던 폐결핵 아이들의 건강을 점검해주며 가능하면 현지병원을 방문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치과 또한 선교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진료



과목으로 기본적인 발치를 포함하여 여러 치과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초음파 장비를 가져가서 갑상선이나 담석증, 간내 결절 등의 복부질환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현지에 만연해 있는 알콜중독자들의 간검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특별히 기도부탁드리는 것은 통관에 대한 것입니다. 현지에서 진료하기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활동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의약품과 여러 진료물품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지고 가는 짐들이 하나도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의료활동을 하는데에도 어떠한 제약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도고의 기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묶임을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1. 카자흐스탄의 무슬림들(전체 인구의 47%)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기독교인들(2%)이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2. 미르교회와 파송 선교사인 이은준, 강해정 선교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아래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3. 타라즈 100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타라즈에 필요한 긍휼사역(고아원, 알콜/미약중독자, 재활치료 등)을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4. 8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亨 통하게 진행되고 질서와 안전 속에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교도들과 종교경찰의 방해가 없게 하옵소서.
5. 풍토병 등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항공기와 현지 교통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6. 비전트립팀의 비자 수속과 의리기 및 의약품의 통관절차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7. 팀원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혼연일체의 협력을 하게 하옵소서.



2013 여름 수련회 초대 -에바다부

작은 자들의 친구



임규현 목사
(에바다부 지도)

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세리와 죄인의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 부가 7월29일(월)~31일(수) 아가페타운에서 '작은 자들의 친구'를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는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작은 자들의 친구'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자들의 친구'되기를 결단하는 수련회,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추억으로, 은혜의 추억으로 남는 소중한 수련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청년부

예수님의 힐링(healing)



김가현 성도
(청년1부)

힐링(healing)이라는 말이 참 유행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을 호소하고 힐링이라는 말이 붙은 상품은 순식간에 대중의 인기를 얻습니다.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일텐데 그 사랑을 사람에게서 혹은 각자의 아심에서 채우려 했다가 꺾여 실망한 마음들에 힐링이란 말은 참 달콤해 보인

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잠깐인 것은 다들 알고도 속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제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거란 생각으로 예수님이 아닌 물을 가두지 못 할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 경험하게 해 주신 예수님을 나누려 합니다.

수련회 기간 중 아침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이 참 귀했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죄의 값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시는 사랑을,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제 모란 마음이 굴복돼 가는 과정이 비로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감동이 더 컸던 것은 그 상황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잠은 고기가 없었던 베드로에게 만선(滿船)의 기쁨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특히 처음 만날 때와 너무도 비슷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 주시려는 섬세한 연출처럼 느껴져 참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섬세함으로 제게도 다가와 주시며 은혜로운 수련회와 귀한 분들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아가페 타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차장 내 미끄럼 주의



우리 교회 지하 1,2,3층 주차장이 최근 시행한 방수막 코팅 작업으로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성도들은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동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29일(월) 아시아의 영혼, 장신사랑교회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공동대표모임을 소집하고 8월1일(목) 탈북난민복송반대집회에 참석한다. 8월3일(토) 사랑의쌀운동 조찬기도회와 울란바타르대 이사회 건건회에서 설교한다.
- 이갑진 장로, 차동길 집사와 1명 8/3-9 캄보디아 캄풍츠낭 마하니암 교회 설립1주년 감사예배(8/4) 및 31해병여단 리더십 교육(8/5-7)차 출장
- 득녀 : 7교구 박천우 집사 정희진 집사 가정
- 주간식당봉사 : 한나전도회(7.28) 리브기전도회(8.4)
- 금주의 식사 : 오차열 집사, 하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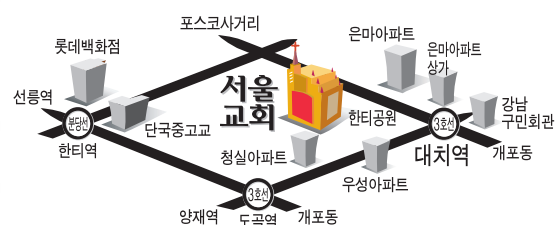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르교회를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2. 에바다부 여름수련회에 많은 농인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3.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계절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젊은이예배	오전 1시 30분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